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And

요한복음 1:1-5, 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2월 25일 성탄주일 설교

¹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⁴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⁵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¹⁴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순 많은 세상

모순이라는 말 아시지요? 앞뒤가 안 맞는 걸 모순이라 하는데 이 말의 본 뜻은 창 모(矛) 자에 방패 순(盾) 자, 그러니까 창과 방패입니다. 옛 이야기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어떤 무기 장수가 창을 선전할 때는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힘센 창이라 하고 방패를 선전할 때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라고 선전을 했는데 구경꾼 하나가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하고 방패가 앞뒤가 안 맞는 말, 논리적으로 정의하자면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두 문장을 가리키는 낱말이 되었습니다. 창이나 방패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물건 좀 팔아 보려고 앞뒤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그 장사꾼이 문제겠지요.

중국제 모순보다 더 심각한 모순이 성경에 나옵니다.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딤후 1:12-13). 사도 바울이 크레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크레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충고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크레타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면 그 말을 한 사람도 거짓말쟁이일 것이니 그 사람이 한 말도 못 믿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순을 생각을 못 했는지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선지자니까 예외라고 생각한 건지 “이 증거가 참되도다” 했습니다만 “나는 거짓말쟁이다”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참일 수도 없고 거짓일 수도 없는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이 왜 생겼다 했습니까? 거짓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와 생겼다 했습니다. 모든 게 참이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는데 거짓이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게 복잡해졌습니다.

학문 세계에도 모순은 있습니다.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빛이 입자나 파동이나 하는 서로 안 맞는 두 이론이 오랜 세월 논쟁을 벌이다가 아인슈타인이 둘 다 다 하고 결론짓고는 노벨상을 타 갔습니다. 인문, 사회과학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선하게 태어난다는 이론과 악하게 태어난다는 이론이 지금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 우기지만 현실에서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됨의 모순

창 방패든, 거짓말쟁이의 모순이든, 학문에 나오는 모순은 사실 다 이론상의 모순입니다. 모순이 그렇게 이론으로만 있다면 사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모순과는 다른 진짜 모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순덩어리입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이걸 현실에서는 모순이라는 말보다는 괴리라는 말로 주로 표현합니다.

우리 다 건강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먼 거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맞는데 그건 못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합니다. 하고 싶은데 왜 못 합니까? 하기 싫는데 왜 합니까? 세상이 그렇다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도 도움이 못 됩니다. 자연재해라는 게 있지요. 자연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내 뜻에 안 따라 줍니다. 괴리지요.

자연과 나 사이의 괴리나 세상과 내가 안 맞는 건 그래도 낫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괴리, 어떤 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괴

리는 나와 나 사이의 괴리, 내가 나 자신과 안 맞는 괴리입니다. 내가 돌입니까? 아니지요. 나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둘로 갈라져 따로 놓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는 나와 실천하는 내가 다르고, 말하는 나와 행동하는 내가 또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도덕이라는 걸 배웁니다. 바른생활이지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버스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파출소에 가져 가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거짓 말을 하면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나쁘고, 어려운 이웃은 도와야 된다, 등등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뭐가 옳은지 알긴 잘 알지요. 하지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실천할 때는 옳고 그른 걸 떠나 다른 원리를 따릅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찐다, 건강에 안 좋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안 먹습니까? 잘 먹지요. 먹은 다음 운동은 안 합니다. 알긴 아는데 실천은 안 합니다. 그래, 내가 해 줄게, 약속은 했는데 안 지킵니다. 약속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생각보다 어렵지요. 나도 사는 게 바쁘는데 남 쟁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미리 알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합니다.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생명에서 떨어진 삶

이 모든 모순, 이 모든 괴리가 사실은 하나에서 왔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순,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뭐가 모순입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안 맞는 거지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본디 뜻하고 실제로 살면서 하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가 옳은지 알지만 그걸 안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사는 거지요. 인간 존재의 모순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창조의 본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모순과 같은 겁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엡 4:18).

생명이신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김으로써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이 사람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연이 내는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돌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자연이 사람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 자녀가 나누어지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이고 짓밟고 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 사람도 죽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죽음 속에서 삽니다. 몸이 움직이니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학문에서 발견하는 모순, 논리나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모순, 그리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달라 나 자신조차 하나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 모순, 이 괴리는 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 가운데 죽어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모순을 고백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 7:22-24)!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신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정해 그 뜻을 새기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비를 한 구절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시절, 그러니까 아직 만물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창세

전”입니다.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사실 안 맞는 말입니다. 전, 후라는 말은 시간이나 순서가 있을 때 쓰는 말인데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주가 생긴 다음 시간이나 전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우주가 없던 그때가 우주가 있는 지금보다 과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주가 생긴 다음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최초, 곧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로 돌아가 천지 창조를 따지다 보니 머나먼 과거에 생긴 일처럼 말할 수밖에 없지요.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그냥 시간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도 영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은 시간이 없는 상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 년 같기도 하고 천 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요 (시 90:4; 뱀후 3:8). 그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 13:8).

갑자기 웬 시간 이야기일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 되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곧 우주의 창조주이신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람이면 사람이지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천 년 전 한 아기로 태어나 사람으로 사셨는데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선구자 요한이 예수에 대해 전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요 30)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8:58) 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바로 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나자마자 구유에 누우셨으면서도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습니다 (눅 2:49, 51).

우리 주님은 백 퍼센트 사람, 백 퍼센트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 (골 2:9).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람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으로 목이 마르실 때도 있었지만 영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안 드시면 배가고프셨으면서도 오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배에서는 피곤하셨는지 주무신 일도 있지만 깨신 다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갖고 사셨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마디로 우리 주님은 모순덩어리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은 삶,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도 그런 모순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 8:17; 사 53:4).

영원이 시간으로

오늘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순의 세계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과 죄가 뒤섞인 모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눈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순의 세계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기적입니다. 천지창조 때도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던 거기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곳에 무언가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것도 함께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영원인데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피조물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때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성탄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이 시간과 만났습니다. 시간 없는 게 영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없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하면서 누가 죽을병에서 나왔다, 누가 큰 사고를 면했다, 하면서 이런 저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지만 진짜 기적은 크리스마스 자체입니다.

그렇게 시간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시간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신 것도 기적입니다. 모순이면서 또 기적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땅에 와 사셨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으셨으면서도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기꺼이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의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뜻,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에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모순에 갇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 그 모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런 혼돈의 삶으로 내몬 것은 우리의 거짓이요, 우리의 탐욕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의 온갖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모순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순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떠나 모순된 삶을 살며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그 죄가 가져온 모든 모순을 없이하시려고 친히 모순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모순, 그 어둠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물든 우리 마음,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말해 놓고서도 행동하지 않은 우리 모순을 없애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 뜻,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의 소망

세상은 지금도 모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내 걸 챙기지만 남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배가 불러 죽어 가는 이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어 가는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공직에 나온 사람들이 돈을 탐하고 명예나 쾌락을 탐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보다 더 가지려고 사람을 속이고 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한입니다. 친히 모순 덩어리가 되어 세상에 모순 속으로 들어오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도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주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지금 남아 있는 이 찌꺼기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데도 몸도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이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21).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이요 모순의 날이면서 또 그 모순을 해결하여 참된 삶,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날에 담긴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